교원평가 전면시행…교육관련 단체 반응

"아직 시기상조" "불가피한 결정"

"평가 결과 인사에 반영해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자 교육관련 단체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과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교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제를 근무평정 및 성과급제와 통합해 삼중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수년 전 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교총 등이 법시행에 찬성한 만큼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등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원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해온 사항으로 평가결과를 인사나 보수 등과 연계하면 평가를 굴절시키고 인기에 영합하는 교사만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현재 정치권과 교원단체는 '6자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상황으로,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협의체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현재 정치권이 정쟁만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먼저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한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수업·지도 활동을 계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교원평가가 시행되기는 처음이어서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평가는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교장·교감 포함)이 평가 대상이다.

이미 지난 5년간 시범 운영됐으며 학교 수도 2005년 48개교에서 2006년 67개교, 2007년 506개교, 2008년 669개교, 지난해 3천164개교로 급속히 늘었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서 활용한 평가 지표 및 문항지를 토대로 3월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크게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동료 교사 평가는 교사 1명에 대해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동료 교사 3명 이상이 평가하는 것이다. 동료 교사에는 교장, 교감이 포함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중·고교는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서로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게 될 동료 교사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들로 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장과 교감도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훈련중 식물인간 된 광주체고 장대높이뛰기 선수에

광주시 4억7천만원 배상하라

광주지법 판결…학교체육 안전에 경종

부상 중에 무리한 훈련을 하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10대 장대 높이뛰기 선수에 대해 법원이 4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선수 건강관리 및 훈련장 안전시설 미흡 등 지도자들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8일 광주 모 고교 체육특기생 이모(19)군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는 이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7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군은 지난 2008년 5월 21일 전국대회를 1주일 가량 앞두고 학교에서 장대높이 뛰기 도약훈련을 하다 보호매트 옆 바닥으로 떨어져 뇌 손상 후유증으로 의식 불명과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이군은 대학 입학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장대높이뛰기 공식 기록이 없었으며, 어깨부상으로 인해 2학년 동계훈련 이후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이군 측은 "지도자들이 (이군이) 어깨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서도 부상이 완치되기 전에 무리하게 도약 훈련을 시킨 과실이 있다"며 10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지도자들이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군이 다녔던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도자들이 어깨부상을 당한 이군의 회복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훈련에 합류시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 당시 좌우 측면에 보호 매트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부상당한 이군이 훈련에 합류한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이군의 몸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충분한 기초 체력훈련, 공인규격 매트 외 보호매트가 없었던 점 등도 지도자 관리 소홀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군이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신체상태를 전달하지 않은 점과 훈련과정상 선수의 실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해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31사단 장병 20명이 8일 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유채 시설 하우스에서 폭설로 무너진 철근 지지대를 바로 세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H수련회 회원 성폭행 혐의 동료 회원 전직 경찰 고소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광주 H수련회 원장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 H수련회의 한 회원인 전직 경찰이 같은 회원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H수련회 회원이 최근 순천경찰 P(42) 경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회원은 고소장에서 "P경찰이 (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뒤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P경장은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주말·휴일 추위 주춤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기온은 다소 올라 강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9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면서 "낮부터 평년기온을 회복,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8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3~7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전날보다 기온이 1~2도 가량 오른 수치다. 눈 또는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휴일인 10일에도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 최고기온이 8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피의자 자매

무고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의 두 딸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의 큰딸(33)과 둘째딸(29)은 지난해 7월 사건발생 이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막내딸(26)을 부추겨 "마을 주민 B씨(50)가 자신을 성폭행 해왔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초기 검찰이 자신들을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하자 수사 초점을 흐리기 위해 친척을 시켜 동생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기소된 막내딸이 그동안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허위진술 사실을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이들 부녀의 재판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이 시작돼 오는 28일 제9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7월 6일 B씨 등이 가져온 막걸리를 순천시 황전면 천변에서 희망근로자들과 나눠 마셨다가 B씨 등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바로 뱉어 목숨을 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지역 법관들 잇단 변호사行

인사철 맞아 사의 표명

법원의 정기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법관들의 '변호사행'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구길선 부장판사와 이병주 판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구 부장판사 등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장판사는 광주고·지법 판사를 거쳐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관재(57) 광주고법원장 등 1~2명의 법관이 추가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한편 김 고법원장과 함께 황영목(59) 대구고법원장, 이기중(57) 부산고법원장 등도 주위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

"빌린 돈 왜 갚지않나" 친구 오토바이 불태워

광주서부경찰은 8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광주 모 고교 2년 J(17)군 등 3명을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P(16)군의 125cc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석 달 전 P군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0여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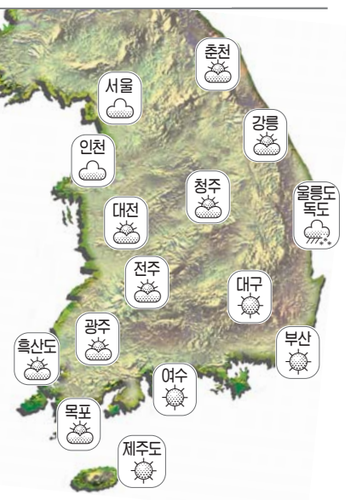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38분 달뜸 02시 12분 달짐 12시 42분

한풀 꺾인 '동장군'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으며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광 주	구름 많음	-5/4℃
목 포	구름 많음	-3/4℃
여 수	구름 조금	-2/6℃
완 도	구름 조금	-3/5℃
구 례	구름 많음	-8/4℃
해 남	구름 조금	-5/6℃
장 흥	구름 조금	-6/6℃
고 흥	구름 조금	-7/7℃
순 천	구름 조금	-4/5℃
영 광	구름 많음	-7/3℃
진 도	구름 조금	-3/6℃
전 주	구름 많음	-5/3℃
남 원	구름 많음	-10/3℃
흑산도	구름 많음	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서	0.5~0.5m
먼바다	북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서	0.5~0.5m
먼바다	북서~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9:13 21:11	01:37 14:34
여수	04:25 16:09	10:27 22:3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날 씨						
최저/최고	-4/5	-3/4	-4/1	-5/10	-4/4	-1/5

신임 광주·전남지방경찰청장 취임

"광주, 가장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

이송범 광주경찰청장

이송범(57) 광주지방경찰청장은 8일 "광주를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 2층 빛고을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학창시절과 경찰 초임시절을 보낸 광주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광주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광주경찰이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선진 일류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여성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치안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출소 전환을 확대하고 치안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는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한편, 깨끗하고 실력있는 경찰이 되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장성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영학과를 나와 1978년 간부후보 26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조사과장,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을 거쳤다. /이종행기자 golee@

"보살펴주는 '정성 치안' 펼치겠다"

박웅규 전남경찰청장

박웅규(55) 전남지방경찰청장은 8일 "전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통해 선진 일류 경찰로의 도약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전남경찰청 남도마루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 보루(寶樓)' 임에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맞춤형 치안 체재 확립을 통해 고향인 전남의 사회 안전지수와 경찰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또 "올해는 6·2 지방선거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그간 불황으로 인해 잠복해 있던 노사·계층·이념 갈등이 한꺼번에 표출될 수 있는 만큼 각종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것과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며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설명하며, 한 번 더 살펴주는 '정성 치안'을 펴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영광 출신으로 1981년 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 함평경찰서장, 광주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이날 치안감으로 승진·내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천벌' 받은 성폭행 미수범

쌍나팔

○…광주의 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던 중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5)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광주시 서구 유촌동 A원룸 2층에 사는 필리핀 여성 P(22)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이씨는 잠금 장치가 풀린 P씨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성폭행하려다 잠에서 깬 P씨가 소리를 지르자 급히 도망쳤으며, 이 과정에서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DNA와 광주 모 병원에 입원 중인 이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대조한 결과, 이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